
요약

[개황]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고,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히 작동하였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작년 4월 위기단계 진입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금년 5월에는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는 1.8(잠정)까지 낮아졌다.

금융안정지수(FSI)¹⁾²⁾



주: 1) 금융안정 관련 실물 및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

2) 2021년 4월 및 5월은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목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신용은 주택 매매·전세 관련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기업신용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자금수요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간 채무상환능력의 차이는 심화되었다. 한편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이 부문간·업종간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가계와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자산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의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가운데서도 투자자의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상승하였고 주택매매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장기시장금리는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국고채 수급 우려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주가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개선,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험선호 및 수익추구 강화 등으로 부동산가격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산가격을 기초경제여건 등을 통해 평가해 보면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의 경우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암호자산이 경제적 가치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자산시장에서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된 위험추구 성향의 확산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다만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연체율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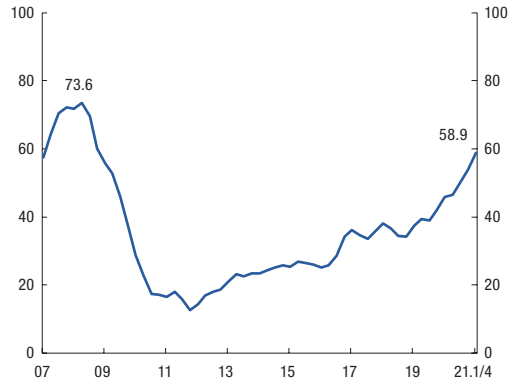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금은 금년 1~5월중 주식 자금이 순유출된 반면 채권자금은 큰 폭 순유입되었다. 향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국내 주가 고평가 및 주요국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로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선진국 주가 상승세, 위험추구 성향 강화 등을 배경으로 주식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금융부문이 대내외 충격을 감내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과 유동성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였다. 향후에도 양호한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유지될 전망이나 차주들의 신용리스크가 경기회복 양상, 시장금리 움직임 등에 영향받으면서 금융기관 복원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안정세,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및 대외지급능력 등을 기반으로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등 안정된 모습이다. 다만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및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¹⁾(FVI)가 오름세를 지속하여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4/4분기 41.9에서 2021년 1/4분기 58.9까지 높아졌다. 그동

안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심화된다면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 변종 바이러스 출현 등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의 위험선호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민간부채 증가세 및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 자산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취약성지수(FVI)¹⁾



주: 1) 3개 평가요소(자산가격, 신용축적 및 금융기관 복원력)와 관련된 39개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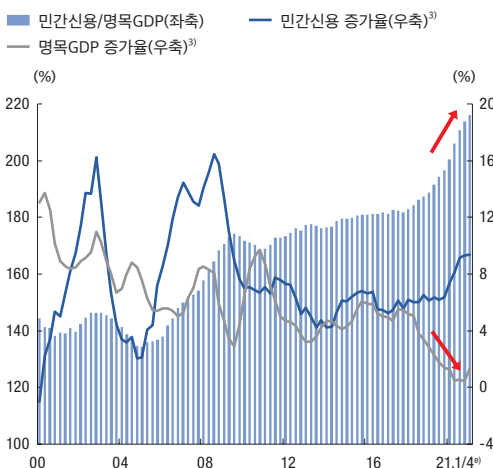
1) 금융취약성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1.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107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1. 신용시장

①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신용/명목GDP 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216.3%(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 상승(+15.9%포인트) 하였다. 가계의 주택관련 대출 수요 확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의 자금확보 노력 등으로 민간의 자금수요가 늘어난 반면, 명목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민간신용¹⁾/명목GDP²⁾ 비율



주: 1) 2021년 1/4분기는 추정치
 2) 해당 분기 및 직전 3분기 명목GDP의 합
 3)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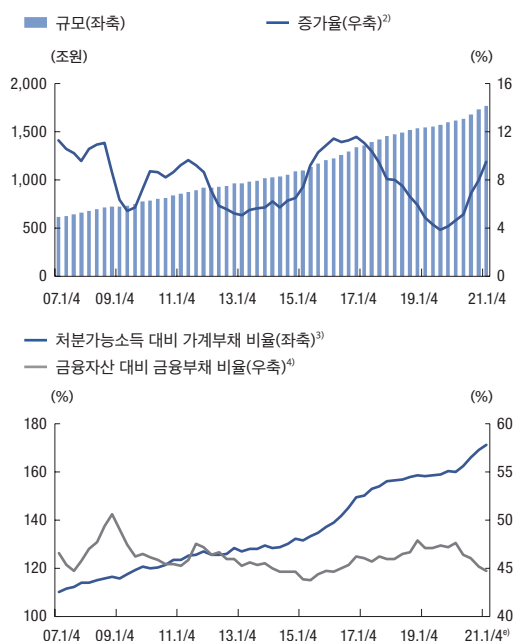
②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1년 1/4분기말 1,765.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여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171.5%(추정치)로 전년동기(160.1%)보다 11.4%포인트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 상승의 영향으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21년 1/4분기말 44.7%(추정치)로 전년동기(47.6%)보다 2.9%포인트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향후 경기회복이 부문간·업종간 차별화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가계신용¹⁾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2021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4) 자금순환통계 기준이며 2021년 1/4분기는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③ 기업신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금수요 등으로 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회사채 및 CP도 순발행되며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기업대출은 2021년 1/4분기말 1,402.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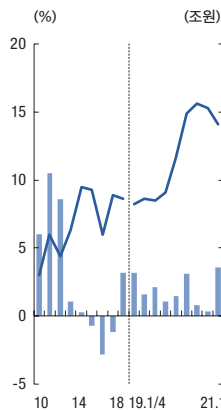
14.1% 늘어나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세가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더욱 확대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주가 상승을 배경으로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간 채무상환능력의 차이는 심화되었다. 2020년말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기업의 차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확충 노력 등에 힘입어 77.2%로 상반기(81.1%) 대비 하락하였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하반기에 반등(상반기 3.4배→하반기 5.4배)하였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 비중이 상반기보다 상승하는 등 기업간 재무건전성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의 불확실성,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기업의 실적 회복이 지연될 경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잠재된 신용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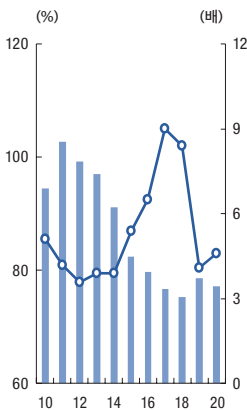
기업신용

— 기업대출¹⁾ 증가율(좌축)²⁾
— 회사채 순발행(우축)³⁾



기업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좌축)⁴⁾
— 이자보상배율(우축)⁵⁾



주: 1) 기업대출은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기준(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자료 제약으로 일부 업권 및 기간에 금융보험업 대출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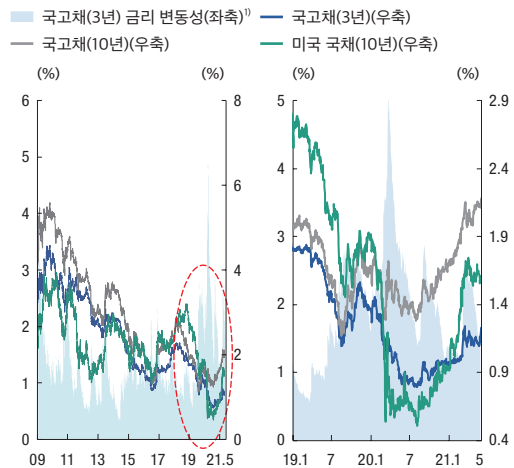
- 2) 전년동기대비
- 3) 2018년 이전은 연간 기준, 2019년 이후는 분기 기준
- 4) 부채/자기자본, 기말 기준
- 5) 영업이익/총이자비용

자료: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KIS-Value,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II. 자산시장

①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국고채 수급 우려 등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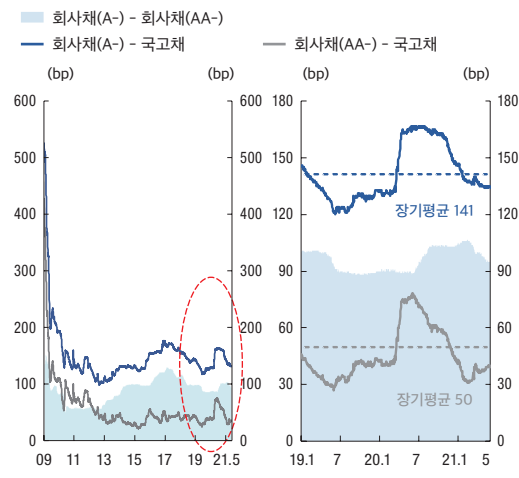
국고채 및 미국 국채 금리



주: 1) 지수가중이동평균(EWMA)에 의거 일별 변동성 산출
자료: 금융투자협회, Bloomberg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3월 중순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소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축소세를 보이면서 과거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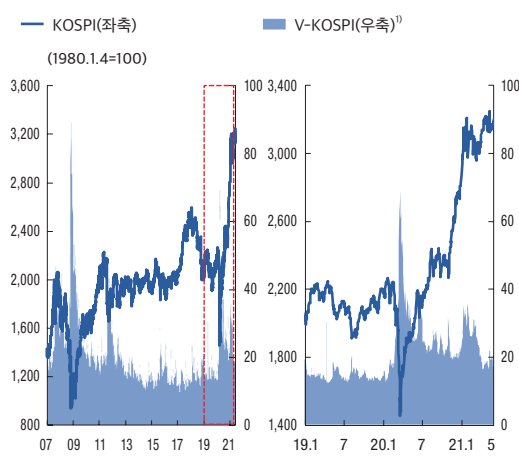
회사채 신용스프레드¹⁾ 및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²⁾



주: 1) 3년물 기준
2) 장기평균은 2010년 1월~2021년 5월 기간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② 주가는 연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뒤 단기급등에 대한 경계감, 미국 주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코로나19 백신 공급 진전에 따른 국내외 경제지표 및 기업실적 개선 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재차 상승하였다. 주가 변동성 지수는 대외 리스크 증가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3월 이후 점차 안정화되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주가 및 주가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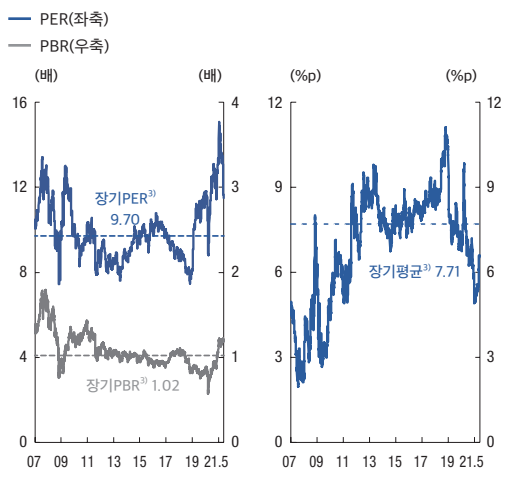


주: 1) KOSPI200 지수 옵션 가격으로부터 산출된 변동성지수
자료: KOSCOM

수익성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수익비율(PE)은 5월말 현재 11.48배로 장기평균(2010년 이후, 9.70배)을 상회하고 있다. 청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21배로 장기평균(1.02배)을 상회하였다. 한편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위험선호가 증대되면서 주식 리스크프리미엄(낮을수록 위험선호 증대)도 빠르게 낮아져 5월말 현재 6.53%포인트로 장기평균(7.71%포인트)을 하회하고 있다.

PER¹⁾ 및 PBR²⁾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⁴⁾



주: 1) MSCI 기준(12개월 선행 PER)
2) 코스피 종목 기준
3) 2010년 1월~2021년 5월 기간중
4) 수익/주가 비율(MSCI 기준 12개월 선행 PER의 역수) - 국고채(10년) 수익률
자료: Bloomberg, Refinitiv

③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급변 들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수급불균형 우려,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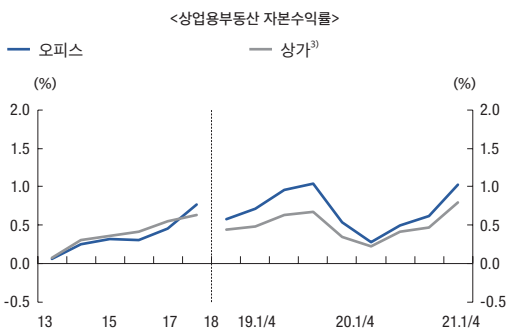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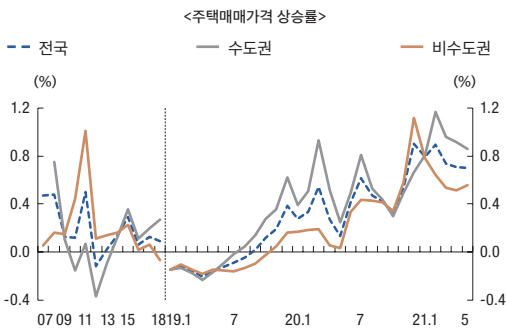
전월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 등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의 급등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나 입주물량 감

소, 3기 신도시 청약대기 수요 등의 상승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상업용부동산시장은 임대가격 하락, 공실률 상승 등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금유입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부동산가격의 상승세 지속은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키면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및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²⁾



주: 1) 전월대비, 단, 2018년 이전은 전월대비 상승률의 연평균
 2) 토지와 건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자산가치의 전분기 대비 상승률 단, 2018년 이전은 연평균
 3) 중대형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Ⅲ. 금융기관

① 일반은행의 경영건전성을 보면,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모두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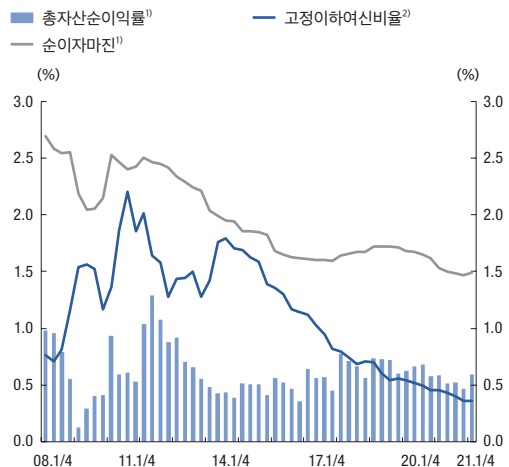
2021년 1/4분기말 일반은행의 총자산은 1,989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 늘어나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산건전성은 기준금리 인하, 만기연장 및 원리금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힘입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36%로 하락하는 등 개선세가 이어졌다.

수익성은 이자이익 증가 등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당기순이익 증가와 함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2021년 1/4분기 0.59%(연율환산 기준)로 전년동기(0.58%)보다 0.01%포인트 상승하였다.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기말 기준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②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은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규모는 2021년 1/4분기말 3,16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5% 늘어나며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저축은행은 전년동기대비 26.2%의 높은 자산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자산건전성의 경우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모든 업권에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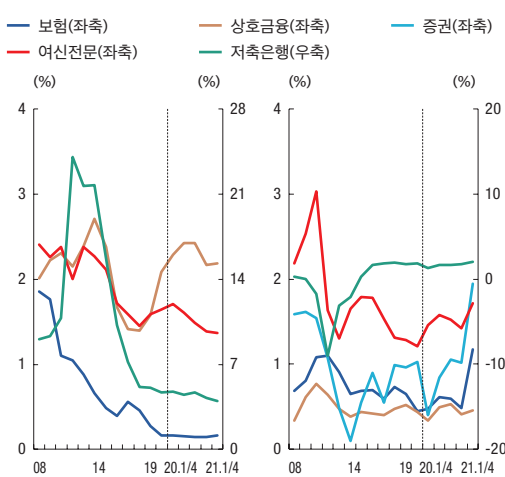
수익성은 증권회사,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모든 업권에서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증가, 저축은행은 예대마진 개선 및 대손비용 감소, 보험회사는 손해를 하락 및 준비금 부담 완화 등이 주요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③ 금융기관 간 자금조달·운용을 통한 상호연계성은 높아졌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는 2020년말 2,97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1.2% 늘어났으며, 금융부문 총자산에서 전체 상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33.0%로 전년말(32.7%) 대비 0.3%포인트 상승하였다.

금융기관 간 상호거래에서는 은행권 내 거래가 전년말 대비 18.1% 증가하여 가장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어 비은행권 내 상호거래는 12.7%, 은행·비은행권 간 거래는 8.0%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상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권 내 거래가 2019년말 4.7%에서 2020년말 5.0%로, 비은행권 내 거래가 59.3%에서 60.1%로 높아졌으며, 은행·비은행권 간 거래 비중은 36.0%에서 34.9%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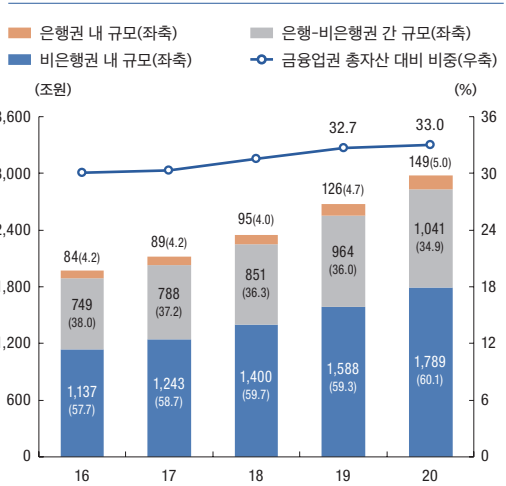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 구조를 토대로 부실전염 및 집중도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부실전염 리스크가 전년말보다 증가한 가운데 집중도 리스크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 고정이하여신비율¹⁾²⁾ 비은행금융기관 총자산수익률²⁾³⁾



주: 1) 기말 기준, 증권회사 제외
 2) 2019년 이전은 연간 기준, 2020년 이후는 분기 기준
 3)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기관-업권 간 상호거래 현황¹⁾²⁾



주: 1) 상호거래 규모는 자금순환통계 기말 기준
 2) () 내는 전체 상호거래 규모 대비 비중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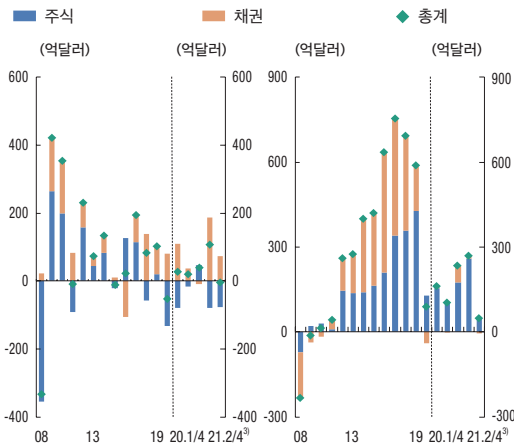
IV. 자본유출입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자금은 2021년 1~5월중 105억달러(주식 -155억달러, 채권 260억달러) 순유입되었다. 주식자금은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성 매도 등의 영향으로 순유출되었으나 채권자금이 공공자금을 중심으로 큰 폭 순유입되었다.

향후 외국인 국내증권투자는 채권자금의 경우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주식자금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 등에 따라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선진국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식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2021년 1~4월중 316억달러(주식 313억달러, 채권 3억달러)로 전년동기(168억달러)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¹⁾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²⁾



주: 1) '+'는 순유입, '-'는 순유출을 의미
 2) '+'는 순투자, '-'는 순회수를 의미
 3)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은 4~5월중,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감은 4월중

자료: 한국은행

[복원력]

I.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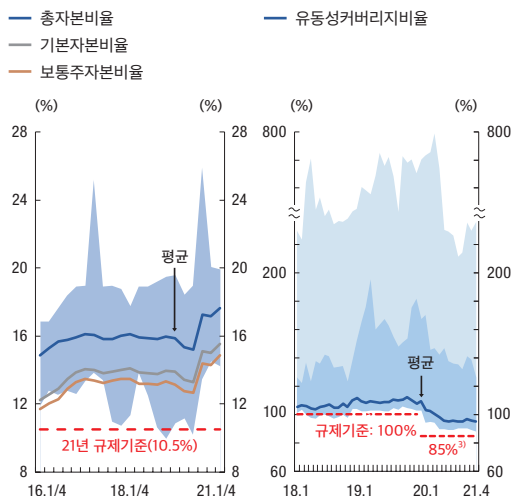
① 일반은행의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각각 17.65%, 14.85%로 전년말 대비 0.50%포인트, 0.57%포인트 상승하였다.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기업 및 기타 금융기관의 대기성 자금 증가 등으로 순현금유출액이 확대되면서 2021년 4월말 94.9%로 전년말 대비 0.2%포인트 소폭 하락하였다. 향후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종료시 은행의 대출여력 축소, 조달비용 상승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반은행 총자본비율

일반은행 LCR¹⁾²⁾



주: 1)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분포를 나타내며 진한 음영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경우를 나타냄

2)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3) 2020년 4월~2021년 9월중 한시적으로 85%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②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도 모든 업권에서 자본 적정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1년 1/4분기말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719.9%로 전년말 대비 21.3%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 여타 업권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다소 하락하였다. 생명보험회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비율)은 273.2%로 전년말 대비 24.1%포인트 하락하였다.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9%, 18.6%로 전년말 대비 모두 0.3%포인트 하락하였다.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은 8.2%로 전년말 대비 0.2%포인트 하락하였다.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취약차주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부분이다.

II. 대외지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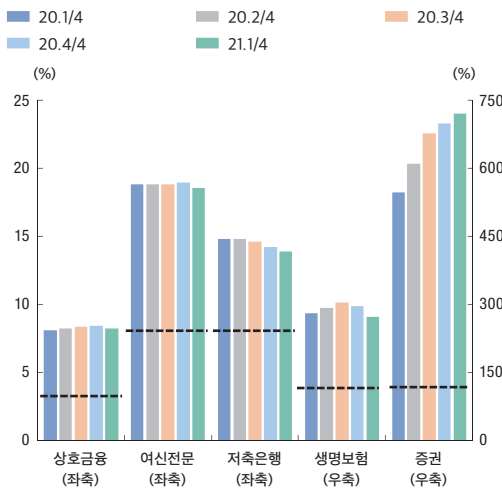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순대외채권이 전년동기대비 소폭 축소(-10억달러)된 가운데, 외환보유액은 2021년 5월말 4,564.6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전년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이는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외채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2021년 1/4분기말 37.1%로 전년동기(37.6%)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외채 건전성 측면에서 아직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추가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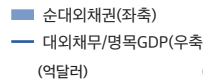
비은행금융기관 자본적정성 비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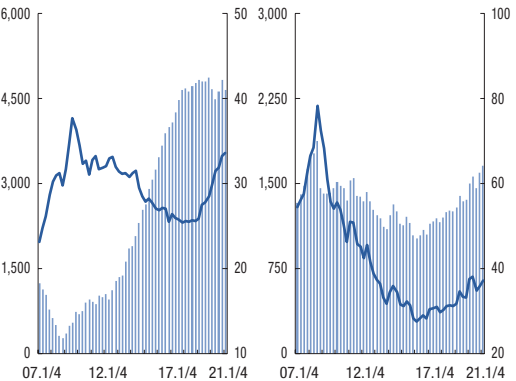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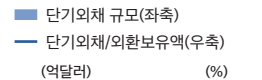
주: 1)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감독기준 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7%, 신용카드회사는 8%),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7%,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은 8%),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100%), 증권회사 순자본비율(100%)
2) 점선은 감독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¹⁾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¹⁾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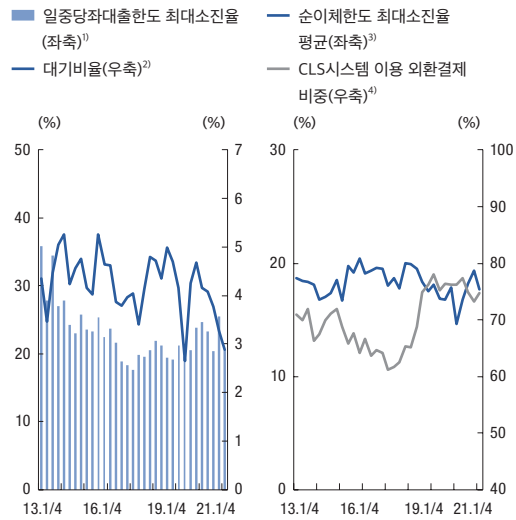
III. 금융시장인프라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1년 1/4분기 중 각각 20.5% 및 2.9%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 관련 결제리스크를 나타내는 순이체한도 소진율도 17.7%로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었다. 한편 외환결제 중 외환거래를 시차 없이 결제함으로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축시키는 CLS 외환동시결제의 비중은 2021년 1/4분기 중 74.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 및 외환결제 시스템



- 주: 1)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2)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3)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4)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